

## 역사학의 새로운 동향과 향토사

김 은 석\*

### 요 약

이 글은 1980년 대 이후 사회사의 강조점이 바뀌는 흐름 속에서 향토사의 전망을 넓혀보자는 생각에서 최근 역사학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향후 향토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최근 역사학의 경향 가운데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중이 직접 역사 서술에 참여하는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는 움직임과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역사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들은 앞으로 역사서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향토사에 대한 인식론적, 방법론적 변화가 일어나리라 보여진다.

이 시점에서 향토사는 어떠한 관점에서 서술되고 지향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검토는 향후 향토사의 위상과 더불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향토사는 국가사의 내용 및 흐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향토사와 국가사는 서로 달리 서술될 수밖에 없다. 만일 과거의 사실들을 국가사의 시각에서만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각 지역의 경우를 한결같이 동질적인 것으로만 파악한다면, 오히려 지역마다의 독특한 과거는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역사가에 의해 추상적이며, 가공적인 사실을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살아있는 인간의 역사'를 재발견하려는 최근 역사학의 경향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각 지역마다 과거의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은 이 때문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의 우선적인 과제는 향토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정립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향토사란 고향에 대한 애정만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지역의 역사만을 다룬다고 해서 향토사로 자리매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향토사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관점은 해당 '그 지역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 제주교대 교수

## I. 머리말

“도대체 역사란 무엇에 쓰는가를 설명해 주세요”라는 한 소녀의 질문에 마르크 블로흐(Marc Bloch)의 유고작인 「역사를 위한 변명」(*L'Apologie pour l'histoire, ou métier d'historien*)이 나온 지 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비단 블로흐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는 이 소녀가 던지는 ‘역사학의 존재 이유 및 효용성’에 대해 늘 끊임없이 답변하도록 운명이 지워진 것 같다. 이 점에 있어서 향토사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향토사에 대한 일반의 끊임 없는 시선이 있어 더욱 그렇다. 즉 향토사란 토박이들이 근대화, 산업화로부터 상실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보상으로 막연하게 지난 날의 추억을 회고하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찾으려는 이른바 사회적 노스텔지이거나 아니면 대중의 복고적 감정을 부추기는 문화적 센세이션리즘이라는 혹평이 그것이다. 이제 향토사가의 경우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분명한 입장 정리와 더불어 스스로를 위한 ‘변명’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향토사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문제의식과 특정 지역의 과거상을 재현하기 위한 투철한 사명감에 비해 향토사의 인식지평과 실천적 지향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논의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관련된 논의의 장을 마련해보자는 의미에서 첫째, 최근 서구 역사학계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향토사를 위한 변명’을 위한 논거를 마련해 보았다. 물론 지역적, 사회적 특성이 다른 서구 역사학의 경향이 한국의 역사현실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지 의문이다.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학도로서 향토사 연구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우리 향토사의 전망을 넓히는 것도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한다.

둘째, 향후 향토사의 위상과 그에 걸맞는 사학사적 자리매김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이다. 특히 향토사 관련 종사자들이 최근 역사학의 흐름을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향토사는 국가사와는 다른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방법론상의 전환을 위한 방안 등은 무엇인가를 놓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에서 염두에 둔 것은 제주도의 경우이다. 사실 필자는 다른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향토사 연구의 성과물들을 본격적으로 접해 본 적이 없다.

## II. 역사학의 새로운 동향과 향토사의 위상

1961년 카(E.H. Carr)는 “역사학이 사회학적으로 바뀔수록, 그리고 사회학이 역사학적으로 바뀔수록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했다(Carr, 1990:66). 이 주장에 화답이라도 하듯 20세기 중반 이후 사회사와 사회경제사가 정치사를 능가하면서 역사학계의 신데렐라로 부상했다.<sup>1)</sup>

사실 20세기 중반 이후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 환경이 조성되면서 과거 정치 중심적이며, 국가영역에 초점을 맞춘 랑케식의 역사연구는 산업사회에서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낡은 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각 나라가 처한 서로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역사학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새로운 전통이 세워진 바, 그 결과가 다름 아닌 ‘사회과학적 역사’의 출현이다. 프랑스의 아날학과(Annals)적 전통, 독일의 역사적 사회학(Historische Sozialwissenschaft)과 사회사(Sozialgeschichte), 미국의 신사학(New History)과 신경제사(New Economic History)등이 그 예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학성의 추구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주로 각종 통계자료의 검토를 통한 사회구조의 해명에 관심을 두었으며, 사회경제사 연구에서의 계량화에 열정을 쏟았다. 그런가 하면 역사학의 과학화를 위한 가설, 개념, 모델, 법칙 등을 적극적으로 상용화했으며, 이를 위해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심리학 등과의 활발한 교류를 시도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회과학적 역사’가 표방하는 이러한 과학성의 추구에 대한 회의가 일기 시작했다. 이는 오랫동안 역사학계를 지배해왔던

1) 이것은 1958년부터 1978년 사이에 미국에서 사회사 방면의 박사학위 논문의 숫자가 4배로 늘어나면서 정치사 분야를 앞섰다는 사실로도 입증된 다(Hunt, 1989:1).

거대담론 중심의 '사회과학적 역사'에 대한 일종의 반성이자 또 다른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발단은 일차적으로 과학지상주의에 대한 불신, 즉 우리가 신봉해 온 과학은 인간의 행복한 삶의 전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파국의 원인이 될지 모른다는 현대문명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위기감은 예컨대 '구조'의 지배나 '계급'의 분석적 확실성을 추구하는 이른바 아날 페르다임(annals paradigm)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또한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상실된 전통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평범한 이웃들의 전통적인 일상세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하려는 노력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예는 사회사의 새로운 경향들을 보여주는 것들로서 독일의 일상생활사(Alltagsgeschichte), 프랑스의 망탈리테사(histoire des mentalités), 이탈리아의 미시사(microstoria) 뿐만 아니라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New Cultural History) 등과 같은 또 다른 경향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 역사학의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과는 향후 역사학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들은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들 사이에는 방법론적, 인식론적 차이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최근 이들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자체가 필자로서는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를 통해 향후 향토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출해 보았다.

1970,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역사학의 경향 가운데 이 글과 관련하여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역사 서술의 주체와 주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역사란 너무도 중요해서 역사가에만 맡길 수 없다"(Marquard, 1982:106)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상아탑 중심의 역사학의 아성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역사는 사실 전문적인 전공자들만이 이해하는 분야, 난삽한 문헌에 의존하는 고도의 기술적인 작업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역사는 대중이 직접 참여하여 그들에게 친숙한 생활세계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대중이 지식의 일방적인 전파대상, 즉 단순한 객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역사연구의 주체가 됨을 의미하는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대중의 사회적 삶의 일상적 경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역사학의 존립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이미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역사공방’(Geschichtswerkstatt)운동에서 그 변화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sup>2)</sup>

둘째, 최근에 와서 역사연구에서 소외되던 여성과 소수민족은 물론 이름 없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보다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20세기 중반 이후 역사학계의 주된 논의 역시 ‘밑으로부터의 역사’였고, 그 강조점도 대중의 역사, 보통 사람들의 역사의 복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조의 지배나 계급적 분석에 치중하는 ‘사회과학적 역사’의 경우 중시된 것은 대중의 삶을 결정하는 ‘구조적 관계’(Strukturzusammenhang)이며, 이러한 태도의 극단적 형태가 다름 아닌 미국에서 유행했던 계량사학(Cliometrics)이다. 그러나 여기서 대중들은 구조의 틈바구니에서 단지 ‘통계숫자’로 취급받았음을 사실상 부인하기 어렵다(Muir and Ruggiero, 1991:vii-xxi).

최근 사회의 구조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문화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과 때를 같이하여 대중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것은 특정 계급의 역사나 그를 위한 역사의 해방적

---

2) 19세기 말 이후 역사학은 지나치리만큼 세분화, 전문화됨으로써 극소수 역사가의 경우나 이해가능한 서술에 골몰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것은 현대 역사학의 최대 오점이 아닐 수 없다(Iggers, 1997:11). 이 때문에 최근 역사학 내부에서도 자기변신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기성 역사학계에 반발하는 소장 역사가들이 주축이 되어 역사의 탈전문화를 표방하는 ‘歴史工房’운동이다. 이 운동은 1960년대 옥스퍼드대학교 러스킨 대학에서 R. Samuel의 지도하에 History Workshop으로 시작된 이래, 1970년대 말 스웨덴의 Grabe-wo-du-stehst, 1980년대 초 독일의 Geschichtswerkstatt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역사학이 더 이상 안주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나온 진지한 모색으로 읽혀진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공방운동은 성공 여부를 떠나 일단 시도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관점에서의 분석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당시 역사를 직접 체험한 일반 대중에 대한 역사의 재구성을 함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역사의 특징은 '구조적 관계'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아니라 과거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세세한 영역에 담겨져 있는 자료들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 상징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사실 인류역사가 영웅이나 역사를 지배하는 구조의 변천과정이 아니라 차라리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살아있는 애증의 기록이라 한다면 우리가 다루어야 할 역사란 소수에 의해 얹치락뒤치락하는 정치질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대한 구조나 제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세계도 아니라는 것이다(Rikoon & Austin, 1991:xii).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발전한 노동자문화사는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신화를 파괴하는 한편, 노동자계급은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상투적이고 화석화된 노동운동을 넘어서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포섭된 노동자들의 삶을 그 어두운 면까지 생생하게 포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가족 및 공동생활,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 신화, 축제, 민중문화, 종교의식, 결혼, 성, 범죄 등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대중들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들의 공통된 문화적 상징의 중요성을 규명하는 노력은 바로 이 때문이다.<sup>3)</sup> 단튼(Robert Danton)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을 통해 보통사람들이 세계로부터 의미를 만들어낸 방식에 대한 연구에 헌정하기 위해 집필한다고 밝힌 「고양이 대학살」이 하나의 예이다(Danton, 1984:4).

역사에 대한 이상의 변화가 앞으로 역사서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추세라면 향토사에 대한 관심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리라고 보여진다. 그것은 최근 역사학의 관점, 주제의 변화가 향토사의 존재이유를 정당화시키는 논거를 제공하

3) 최근 푸코(Michel Foucault)가 역사서술에서 인과관계와 어떤 거대한 진화과정의 형체없는 통일성을 포기하면서 추구했던 것은 새로운 구조가 아니라 이와 같은 새로운 표현양식임을 밝히고 있다(Hunt, 1989:33).

는 변화일 것이다.

사실 향토사는 최근의 역사학 경향과 맞물려 주목을 끌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민족문화와 같은 거대담론을 떠나 특정한 지역 공동체의 구체적인 정황을 재구성하는데 목표를 두면서 새로운 역사운동의 붐을 일으킨 향토사 연구서클의 활동이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1978년 역사학대회에 제출된 논문 중 1/4이 향토사 관련으로 알려질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미국사 관련 참고문헌집인 *America: History and Life*의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향토사와 관련된 방대한 연구 업적을 소개하기 위해 'state and local history'라는 독립된 장을 따로 정해놓을 정도이다(Wellman, 1996:49).

향토사가 주목을 끄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첫째, 그것이 국가사와는 달리 주민 개개인이 공감하는 실제 생활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의 역사'를 재발견하려는 최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역사는 자신들의 삶과는 무관한 거대한 규모의 국가사나 구조적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의미가 외면된 역사'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기존의 사료만을 보고서 근대국가의 규칙들이 위에서 부과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은 별다른 저항도 못한 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시적이긴 하지만 매우 수동적이고 정태적인 역사상을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외부 위기에 대처하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존전략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러한 전략이 비록 거시적 흐름 자체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그것을 조건짓고 수정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정작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자신들' 복원시키는 작업은 그 나름의 존재이유를 갖는다. 즉 향토사는 향후 역사학의 과제가 지금처럼 익명의 추상적인 구조로 이뤄진 역사가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지고 살아 숨쉬는 구체적인 개별 인간들의 회로애락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역사로 전환시켜야 한다면 그 가능성을 향토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sup>4)</sup>

둘째, 향토사에 관심을 쏟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한 눈에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한 소공간의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 있다. 향토사는 국가사와는 달리 주제의 친근성, 구체성, 주변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론을 배경하고 거시적 차원보다는 미시적 차원에서 세부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향토사의 이점은 어떠한 역사보다도 실감나는 과거를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으며, 또한 역사란 결과의 수용만이 아니라 과정의 탐색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향토사의 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셋째, 향토사는 아직도 지배적인 전통으로 남아있는 지배세력이나 勝者의 관점에 입각한 역사서술의 한계를 극복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역사학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지배와 착취, 규제와 억압의 대상이던 개인이나 집단의 삶이며, 역사를 그들의 입장, 그들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토사를 통해 지금까지 역사서술에서도 소외되고 침묵이 강요되어온 여러 집단들이 특정한 삶의 조건에 따라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꾸려왔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Ⅲ. 향후 향토사를 위한 제언

필자는 향후 향토사를 위한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향토사'의 용어

- 4) 사실 필자는 향토사의 새로운 관점에 입각하여 서술된 *The Baltimore Book: New Views of Local History* (Philadelphia, 1991)를 통해 노동사의 경우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무시되고 평가절하된 볼티모어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향토사 연구물이다. 예컨대 지금까지 노동사의 경우 대개 노동자들의 임금과 소득, 사회적 출신과 직업적 유동성 등 노동자들의 계급적 지위를 규정하는 제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향토사의 경우 작업장의 구체적인 노동과정과 노동방식, 주거형태와 거주환경, 가족생활과 이웃관계, 여가활동 등 노동과 여가로 이루어진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들로 옮겨가고 있다.



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유럽의 경우 우리의 ‘향토사’에 비견되는 용어로 ‘local history’가 있다. ‘local history’에 대한 정의는 논자마다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공동체(community)의 기원과 성장, 그것의 변화의 원인과 시점, 소멸 과정과 원인 등을 다루는 이른바 공동체사(community history)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Finberg, 1990:14 ; Hoskins, 1990:14).

그러나 최근 ‘local history’라는 용어를 대신하자는 주장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역사가의 관심은 지역단위의 외적조건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살던 세계에 관해서 어떤 것이 계승되었고, 남겨졌는가,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주민 상호간의 관계를 조명하는 데 있다. 그러나 ‘local’이란 용어 자체가 이러한 인간관계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지리적 영역을 규정하는 인상을 강하게 풍김으로써 ‘local history’ 대신에 ‘nearby history’(이웃사)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장한다(Kyvig & Marty, 1996:100-9).

필자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방사’, ‘향토사’에 대한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의 필요성을 느낀다. 지금까지 노명식과 이기백의 견해가 대체로 수용되는 듯하다(노명식, 1986 ; 이기백, 1991). 예컨대 노명식의 경우 ‘향토사’를 “연구자의 조상이 대대로 살아 온 자기 고향의 역사에 대한 애향적 태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지방사’를 “제 고향이건 아니건 애향적인 감정이 없이 일정한 지역의 자료를 조사한다는 탈주관적 뉘앙스가” 짙은 것으로 구분하면서 그는 ‘지방사’란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노명식, 1986:2-3).

필자가 ‘향토사’의 용어를 사용하는 의도는 두 가지이다. 첫째, ‘nearby history’를 제기하는 측의 논거에서 볼 수 있듯이 실령 내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방사’란 용어가 외관상 ‘지리적 영역성’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지방사’보다는 주민 상호간에 빈번하고 밀접히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련성’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향토사’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특히 아동들에게 자기 고향의 역사를 통해 과거 주민들의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향토사란 용어가 오히려 적합할 것 같다. 둘째, 보다 중요한 이유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강조할 필요성 때문이다. 예컨대 제주도

주민의 과거 사실들을 국가사, 민족사의 관점에서, 아니면 제주도 그 자체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 어느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없다. 다만 이 때 서로 다른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면, 필자는 연구자의 출신지역과 그의 정서에 의해서 지방사와 향토사로 나누기보다는, 예컨대 국가사의 시각에서 제주의 역사를 말할 때(national history localized) '지방사'로, 특정 지역의 시각에서 제주의 역사를 조명할 때(local history *per se*) '향토사'로 부르면 어떨까 한다. 물론 필자가 생각하는 '향토사'의 경우 이런 의미에서 주체의 선정과 접근은 국가사(민족사)의 그것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 각 지역이 그 자체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갖기 때문에 향토사는 국가사의 내용 및 흐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향토사와 국가사는 서로 달리 서술될 수밖에 없다(유철인 외, 1996:246). 만일 과거의 사실들을 국가사의 시각에서만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각 지역의 경우를 한결같이 동질적인 것으로만 파악한다면, 지역마다의 독특한 과거는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역사가에 의해 '실제 일어난 역사'를 버리고, '실제 일어나지 않은 역사'를 취하면서 하나의 추상적이며, 가공적인 사실을 만드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살아있는 인간의 역사'를 재발견하려는 최근 역사학의 경향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각 지역마다 과거의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은 이 때문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의 우선적인 과제는 향토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정립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향토사란 고향에 대한 애정만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지역의 역사만을 다룬다고 해서 향토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향토사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관점은 해당 '그 지역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사실 향토사란 <그 지역의 관점>에서 조명한 역사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역사서술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하나의 예로 미국사의 기원 문제를 들 수 있다. 흔히 미국인들조차 아메리카의 관점에서 미국사를 바라볼 것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사의 출발을 통상 미국이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한 1776년 또는 유럽인

들이 아메리카에 발을 들여놓은 17세기 초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백인, 즉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의 관점이다. <아메리카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역사는 2, 3백년이 아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을 미국역사에 포함시킬 때 미국 역사의 기원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가 미국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는 이유에서 그렇다. 필자가 말하는 <그 지역의 관점>은 과거를 단순 미화하라는 것도 그렇다고 분리주의적 시각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다. 이는 그 지역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비춰지든 비판적으로 비춰지든 상관없이 그 지역 주민의 실존적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경우는 어떠한가. 기존의 제주연구의 한계를 지적 하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결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전경수의 지적은 진지하다.

그 간 제주도의 역사와 사회를 기술하는 적지 않은 저작들이 제주도를 한 반도에 건설되어 있는 하나의 국가에 편입된 하위단위로 간주하는 입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중세와 근세 그리고 현대로 들어오면서 제주도 역사 기술의 기본입장이 한반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거의 고정관념이 되고 있는 것은 역사상에 벌어졌던 커다란 사건들이 남긴 기록들로부터 잘 반영이 되고 있다. 중세의 삼별초난, 근세의 각종 민란들, 그리고 현대의 “4·3사건” 등의 고찰에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역사와 사회를 보는 시각의 결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전경수, 1987:13-14).

여기서 기존의 시각을 검토하기 위해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제주도에서 향토사 현장학습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간주되는 <항몽유적지>의 역사적 성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항몽유적지 관련 내용은 거의 민족사적 입장에서 삼별초군이 제주에 입성하여 끝까지 몽고군에 항전한 제주민의 호국정신의 상징으로서, 혹은 국난

극복을 위한 제주민의 의지의 표출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과연 당시 제주도민의 실재와 얼마나 일치하는 것인가. 그것은 탐라국이 1105년 고려의 일개 군으로 복속된 후 탐라인들의 對高麗 인식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윤용혁은 제주시대 삼별초와 제주민의 관계는 원종 11년 이문경의 진도군이 받았던 절대적 호응의 연장선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제주민의 삼별초에 대한 관계가 긴장적 협조 내지 소극적 협조의 수준이었다고 한다(윤용혁, 1994:74). 이러한 해석은 제주민과 삼별초에 대한 관계에 대해 다른 역사상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여기서 전경수는 탐라국 개국신화의 부활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서 12세기 경 제주민들의 태도는 여몽연합군의 편도, 그렇다고 삼별초의 편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권회복의 차원에서 단군신화가 인구에 회자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제주민들로 하여금 탐라국의 국권 회복의 의지를 불태우게 했으며, 탐라 개국신화는 이러한 차원에서 부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별초와 관련된 전설들을 검토해 보면, 당시 제주인들은 여몽연합군의 편도 아니고, 여몽연합군에 적대해서 고려의 국권을 회복하려는 삼별초의 편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탐라국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고, 이러한 인식은 원나라가 망하게 되는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의 변화를 틈탄 탐라국의 국권회복이라는 문제의 제기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당시 탐라인들에게는 일종의 위기적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위기적 상황에서 탐라인들은 그들의 탐라국 신화를 부활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전경수, 1992:261-2).

물론 필자는 민족사적 측면에서 대몽항쟁의 역사적 중요성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다만 제주 주민의 시각에서 과거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향토사가 이러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면 향몽유적지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함묵적성의 관점에서 벗어나 제주민의 관점에서도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민족사적 관점에서 당시 사건을 서술하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이것은 암묵적으로 중세를 획일적이고 동질성을 가진 시대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틀에 집착하여 역사를 서술하고자 한다면 개별 지역의 경우 실제로 어떠했는가 라는 경험적 인식을 압도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우리는 하나의 추상적이며, 가공적인 사실을 만들어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고 마는 셈이다. 사실 민족주의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이념적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학계의 주류를 형성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기존의 역사서술이 종종 사실의 선을 넘어 역사학을 이념적 신화의 영역으로 끌고가고 있다는 임지현의 통렬한 비판은 경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임지현, 1999:55). 전경수가 강조하는 제주도의 역사와 사회를 보는 올바른 시각은 탐라문화의 역동성과 한계는 무엇이며, 외부와의 상호관계에서 탐라사회의 부침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를 제주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국가사 정립에 있어서 활력이 될 수 있다. 진정한 국가사 내지는 민족사란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각 지역의 역사들이 재조명될 때 오히려 풍부한 역사해석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제주해녀의 역사에서 거론되는 세화리 잠녀투쟁이다. 지금까지 이 사건은 해녀들의 항일운동의 성취과정으로 이해되면서 ① 여성집단에서 주도된 최대 규모의 항일투쟁이었고, ② 국내에서 일어났던 최대규모의 어민투쟁이었으며, ③ 1930년대 국내 최대의 항일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제주도, 1996:588-9).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사실에 대한 민족사적 평가와 해석이 자칫 특정 지역 주민의 과거의 사실과 무관하게 역사가에 의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사회적 교류가 그만큼 제한된 채 분산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촌락공동체가 생활과 관념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 자외식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큰 단위보다는 촌락공동체에 경사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그들의 집단적 자외식이 향촌에 머물러 있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왕조국가나 이

민족 침략자나 모두 그들에게는 공동체의 질서에 부당 간섭하고 억압하는 외부의 적으로 간주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이미 역사가가 제시한 이론적 전제로서 전체적이며, 통합적인 가설에 과거인들의 역사적 사실들을 끼워 맞추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세화리 해녀투쟁의 경우 항일운동이라는 민족사적인 거시적 차원과는 다른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가사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한국사회라는 보편적 구조 안에서 특정 지역 주민의 삶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조적 관계'나 '민족사적 거대시각의 틀'에 당시 역사를 직접 체험한 세화리 해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세세한 영역을 끼워 맞추는 위험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과거인들에게 그들 나름의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식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창조하고 재생산했다. 사실 당시 노동의 영역에 나타나는 해녀들의 욕구는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억압된 노동의 일상에서 자기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변 동료의 존재에서 집단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확보하려는 정서적 혹은 감성적 욕구는 가장 본질적인 것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는 해녀들의 당시 표출된 행위를 단지 항일운동을 위한 합목적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민족사의 고정된 틀에서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파악되는 해녀는 지극히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마치 주어진 노동환경에 단지 기계적으로 반응할 뿐인 이념적 인간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토사가 우리에게 보여 줄 해녀의 삶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노동의 일상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실재의 인간인 것이다.

셋째로 지적할 수 있는 향토사의 과제는 특히 역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이른바 교조주입(indoctrination)의 수단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토사 교육의 의의는 간단히 말해서 나는 과연 무엇인가를 현실감 있게 피부에 와 닿도록 일깨워준다는 데 있다. 즉 우리는 자신들의 삶과 직접 관계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민들이 과거로부터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이를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었는가, 또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좌절과 실패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등을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는 데 있다. 따라서 향토사 교육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Identität) 즉, '자기발견'으로서의 가치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Douch, 1967:122).

향토사 교육을 비롯한 역사교육 일반의 경우 이처럼 자기발견의 기능에 치중할 때 자칫 교조주의가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되는 국사교과서나 향토사 교육에서 민족 내지는 공동체의 업적을 미화하고 공동체의 좌절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그것이다. 사실 역사교육은 애학심 또는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이러한 대중적 에너지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매우 적합한 교과목이다. 이런 점에서 언제나 위정자들에게 매력을 주어 왔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교육이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띤 강력한 행동지침이 되어왔다. 독일의 경우 히틀러 체제 하에 중세도시나 봉건제도의 기원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튜튼민족의 과거를 합리화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그 예이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오히려 향토사교육의 자기발견의 순기능적 가치를 손상시키고, 역사교육 본래의 의지를 희석시킨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기 지역의 역사 유물에 대한 과대포장과 문화적 센세이션널리즘을 부추이는 복고주의 풍토의 경우 더욱 그렇다.

끝으로 우리는 사료 발굴 및 활용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 역사는 사료에 나타난 사실을 탐구하는(fact-finding) 학문이다. 따라서 모든 역사가가 그렇듯이 향토사의 출발점 역시 사료를 통한 사실탐구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사료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제기한 문제에 따라 입을 연다. 그러나 향토사의 경우 문헌사료에 집착하여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편협된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잔존 사료란 주로 정부, 교회, 기업 등 제도권에서 작성된 것이다. 우리가 다루려는 보통사람은 대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일이 드물고 사회구조상 그들의 위치나 구성은 각별한 방법에 따라 재구성된 자료를 광범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향토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분야에 대한 자료, 예컨대 그림이나 사진, 인터뷰를 통한 구술자료 등의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고 이용함으로써 때로는 기존의 역사적 통념을 수정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료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료발굴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세계와 경험이라는 친밀한 주제와 맞물려 역사의 대중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가지 예로 구술사(oral history)를 생각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구술사란 생존해 있는 역사경험의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료를 창조한다. 특히 향토사 자료는 대부분 기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침묵되는 것이 보통이다. 문헌자료가 최소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계층은 대부분 지배계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지배층의 삶은 문자나 기록이 아닌 다른 형태, 즉 구전과 민속의 형태로 전해지게 된다(윤택림, 1994:274). 이런 의미에서 구술사는 기록을 남기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이 역사서술에 참여하여 스스로 말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사료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예컨대 4·3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기술하려는 경우 바로 구술사의 방법론을 수용하여 사료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거인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의 재구성을 학습의 핵심으로 삼는 향토사 교육의 경우 경험자의 증언만큼 더 중요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또한 구술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사료를 통해서 과거를 재구성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사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과거에 어떤 사건이 그 당시의 사회구조와의 연관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다는 그러한 사건을 과거인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체험했는가 하는 다양한 경험의 내용들을 밝혀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향토사는 사실나열적인 사실 기억을 넘어서 창의적인 사고력과 철저한 이해력을 요구하는 지식분야이며, <향토사를 배운다>는 표현 대신에 <향토사를 한다>는 표현이 옳을 것 같다.

#### IV. 결론에 대신하면서 : 대중의 역사를 위한 전망

최근 주목을 끄는 역사서가 나왔다. 1997년 미국역사학회(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회장을 역임한 애플바이(Joyce Appleby)를 비롯한



헌트(Lynn Hunt), 야콥(Margaret Jacob)이 공동으로 집필한 「역사에 대한 진실 말하기」(*Telling the Truth About History*)가 그것이다. 이 3명의 걸출한 여성 사학자들이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구태여 ‘진실’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강조하려고 한 내용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 필자의 눈에 띄는 대목은 기존의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이다. 그들에 따르면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역사가의 소명에 대해 아는 바 없고, 교수들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배워서 강의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역사 교사들도 과거에 대해 사고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훈련시키기보다는 특정한 주제들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역사교과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Appleby, Hunt & Jacob, 1994:9).

이러한 목소리가 향토사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반성의 계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따라서 필자는 현 시점에서 ‘향토사’ 분야의 경우도 이제 분명한 ‘자기변명’이 있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 글을 통해 평소 필자의 입장을 전개해 보았다. 즉 필자가 여기서 논의의 장으로 내놓은 것은 앞으로 향토사에 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이를 통한 향토사의 밝은 전망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향후 21세기 향토사의 위상과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었다면 이 글의 1차적 목적은 달성된 셈이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읍지를 비롯한 마을지들과 각 단체에서 발간하는 각종 역사책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내용이야 어떻든 이것은 지역 주민과 단체들이 스스로 역사의 생산, 연구,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사학의 의미심장한 변화라는 생각이 든다. 1970년대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들이 ‘우리가 서있는 곳을 직접 파헤쳐 보자’는 역사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것은 자신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위대한 인물과 거대한 사건에 묻히고 말 하찮은 에피소드에 불과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운동이었다. 이는 지금까지 역사를 자신들의 세계와는 동떨어진 ‘왕실이나 전쟁 이야기’로 전락시킨 기성 역사학계에 대한 반발이었다.

사실 지금까지 역사는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로 치장함으로써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성을 쌓아왔다. 그 곳에 도전하는 것은 이른바 신성모독에 다름 바 없었다. 그 중에서 일부 역사가들만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역사지식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역사의 대중화 작업에 애써오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대중화 작업도 대중의 역사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대중의 역사는 전문역사학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않던 여성과 소수민족은 물론 우리 주위의 이름 모를 사람들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소위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외치면서 대중의 역사를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대중은 '의명의 통계숫자'에 불과했다. 역사공방운동은 거대한 구조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라져버릴 부속품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죽음, 희로애락,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세세한 영역까지 이해하고 서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앞으로의 역사는 대중을 이끌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역사학자들의 인식에 변화를 요구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언어로 일상의 일을 기록하는 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단튼이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 의한 고양이 학살이 자행되는 사건을 통해 과거상을 재현해 내지 않았는가. 이제 과거 역사학자들에 왕실이나 지방에 파견된 지방의 관리들의 이야깃거리가 우리의 과거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중의 역사를 위한 첫걸음이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학 분야에서 대중의 역사를 위한 가장 동적인 영역(dynamic field)이 다름 아닌 향토사라 할 수 있다(Rikoon & Austin, 1991:xii).

### 참 고 문 헌

- 노명식, 1986, “지방사 연구의 역사와 개황”, 『대구사학』 30집.  
 유철인 외, 1996, “해방 이후 충남 서산 지역의 지방사: 역사적 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한국문화인류학』, 29.  
 윤용혁, 1994, “고려 삼별초의 제주항전”, 『제주도연구』 제11집.

윤택립, 1994,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제25집.

이기백, 1991, 『한국사상의 재구성』, 서울: 일조각.

전경수, 1987, “상고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연구』, 제4집.

———, 1992 “乙那神話와 耽羅國 散考”, 『제주도연구』, 제9집.

제주도, 1996, 『제주해녀』, 제주: 삼화인쇄사.

Appleby, J., Hunt, L., & Jacob, M., 1994, *Telling the Truth About History*, New York.

Carr, E. H., 1990, *What is History*, Penguin Books.

Danton, Robert, 1984, *The Great Cat Massacre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New York.

Douch, Robert, 1967, *Local History and The Teacher*, London.

Finberg, H.P.R., 1952, *The Local Historian and His Theme*, London.

Hoskins, W.G., 1990, *Local History In England*, London and New York.

Hunt, Lynn ed., 1989, *The New Cultural History*, London.

Iggers, George G., 1997, *Historiography in the Twentieth Century, From Scientific Objectivity to the Postmodern Challenge*, Wesleyan University Press.

Kyvig, David & Marty, Myron, 1996, “Nearby History: Connecting Particulars and Universals”, in *The Pursuit of Local History*, ed., Carol Kammen, London.

Marquard, Odo, 1982, “Universalgeschichte und Multiversalgeschichte”, *Saeculum*, 33.

Muir, Edward and Ruggiero, Guido(ed.), 1991, *Mikrohistory and the Lost Peoples of Europe*, Baltimore and London.

Rikoon, J.S. & Austin, J., 1991, *Interpreting Local Culture and History*, Boise.

Wellman, Judith M., 1996, “Local Historians and Their Activities”, in *The Pursuit of Local History*, ed., Carol Kammen, London.

## Local History in Historiography

Kim, Eun-seok

### Summary

Since the 1980s, the nature of academic social history has changed. Local studies, using documentary materials in the community, are being pursued by local historians. This is mainly an advice and encouragement for them, dealing as fully as possible with those problems and aspects of local history which I think hitherto been neglected and which to my mind are worth of attention.

It is certainly true that if the story of every province in this country could be told in full, we should know much more about the Korean past than we do; but I believe that local history is only national history writ small, for such a view would place me in the position of looking only for that which can be found in the larger historical picture while ignoring the special rhythms and themes that emerge in my particular locale.

I approach here a conception which differs radically from those examined so far, in that it treats local history not as an ancillary discipline but as one subsisting in its own right. Those who take up this position draw a distinction between local history per se and national history localized. The latter is a perspective of ascertaining certain facts about the national history.

I see local history as the study of past events, or of people or groups, in a given geographical area. Such study ought to be accomplished by a historian using methods appropriate to the topic under consideration, while following general rules of historical inquiry: open mindedness, honesty, accountability, and accuracy. This definition legitimizes all sorts of research projects. Local history is the study of the human condition in and through time.